

중기부 산하기관, 中企 투자·규제·해외진출 지원 잔걸음

기보·중진공, 탄소감축 투자설명회
창진원, 모빌리티 규제합리화 논의
기정원, 한독 제조혁신 포럼 개최
투자유치·규제에 해소 지원
글로벌 R&D 협력 기반 모색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투자 유치, 규제 애로 해결,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방위로 나서고 있다.

1일 중기부와 개별 기관들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더 포텐셜에서 '탄소감축 기술 분야 합동 투자설명회(IR마트)'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탄소감축 분야 우수 기술 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넓히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는 기보의 탄소카치평가보증, 텍소노미평가보증 등 녹색전환보증 지원을 받은 탄소감축 우수기업과 중진공의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성공·선정기업 9개사가 참여했다. 기보와 중진공을 비롯해 국내 벤처캐피탈(VC), 신용보증기금 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더 포텐셜에서 '탄소감축 기술 분야 합동 투자설명회(IR마트)'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창진원

계자 등도 참석해 투자설명회와 교류 프로그램도 함께했다.

두 기관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탄소감축 기술 분야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보 이재필 이사는 "합동 IR마트를 통해 우수 탄소감축 기술기업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유관기관

과의 협업을 확대해 기후테크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창업진흥원은 같은 날 서울에서 '이동수단(모빌리티)·자율주행 분야 산업 성장을 위한 제2차 규제합리화 회의(라운드테이블)'를 열고 기업들의 규제 애로를 청취했다.

라운드테이블은 정부부처·협단체·전문가·창업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

여한 협의체로,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부터 운영되고 있다.

회의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정부 부처 뿐만 아니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창업 유관단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자동차연구원 등 모빌리티 협·단체 그리고 오토노머스 에이투지, 라이드플렉스, 박버드 등 자율주행 및 이동수단 분야 창업기업들이 참여했다.

회의에선 이동수단·자율주행 분야의 ▲원본데이터 활용 ▲가명처리 정보 활용 ▲위치정보 활용 등에 대한 규제 애로를 듣고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유종필 창업진흥원장은 "앞으로도 스타트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합리화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도 같은 날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에서 '한·독 제조혁신 기술 및 R&D 협력 포럼'을 열고 국내 중소벤처기업과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의 기술 교류 촉진, 공동연구 협력체계 구축 모색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윤재웅 동국대 총장, 게오르크 빌프리트 슈미트 주한독일대사, 독일 프라운호퍼 8개 연구소 소속 연구진 11명을 비롯해 국내 중소벤처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중기부 글로벌협력형R&D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국제공동연구 기획부터 해외 연구기관과의 파트너십 형성, 공동연구 수행 등 사업 수행 전 과정의 경험을 공유하고 1대1 기술 매칭 상담도 진행했다.

기정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매칭된 협력 대상 중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성 등이 우수한 과제를 선별해 협력R&D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신 기정원장은 "이번 포럼이 국내 중소벤처기업과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간 기술협력 확대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기정원은 협력이 지속적인 연구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소공연, 생존권 결의대회 열고 노동정책 직격

9일 국회 앞 결의대회 개최
5인 미만 근기법 확대 반대
주휴수당 폐지·차등임금 요구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고용은 없고 노동만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송치영 회장은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있는 기자회견에서 간담회를 갖고 "정상화 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소상공인 입장에서 계속 비정상적인 것들만 만들고 있다. 지금은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흘러가고 있는 게 잘못"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소공연은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의 3000여 명 소상공인이 참석한 가운데 '생존권 사수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와 고용 정책 대전환 촉구법 소상공인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송 회장은 "법정단체인 소공연의 회원이 140만명 정도에 이르는데 3000명을 모

으기가 쉽지 않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소상공인의 현실이 그렇다"고 토로했다.

9일 예정된 집회에서 소공연은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확대 적용 즉각 중단 등 근기법 확대 저지 ▲주휴수당 폐지 및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실시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 ▲소상공인 단결권 및 교섭권 강화 등 공정거래법 개정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등 소상공인 안전망 구축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강력 반대 등을 강력하게 주장할 계획이다.

송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기법 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지불능력조차 없는 이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것은 다 함께 장사 접고 길거리로 나왔다는 소리과 다름이 없다. 일

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대해선 "최저임금 제도는 38~39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 주휴수당을 즉각 폐지하고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당장 실시해야 한다. 감당할 수 없는 임금을 강제하는 고용 정책은 고용 자체를 없애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송 회장은 최근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의 고액 성과급 이슈에 대해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 어디로 가는지, 소상공인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두산에너지빌리티, 사우디 자푸라 2단계 수주

8400억 규모 EPC 계약 체결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약 8400억 원 규모의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를 수주하며 중동 발전 시장 공략을 이어가고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한국전력공사·사우디아람코 컨소시엄과 '사우디 자푸라 열병합발전소 2단계'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자푸라 열병합발전소 2단계는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동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자푸라 가스전 인근에 건설된다. 2029년 준공이 목표다. 완공 후에는 330 MW 규모 전력과 시간당 465톤의 증기를 생산해 인근 가스전에 전력과 열을 공급하게 된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설계, 기자재 공급, 설치, 시공, 시운전까지 전 과정을 수행

하는 EPC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한국전력공사는 이번 사업에서 개발과 운영을 맡는 디벨로퍼로 참여한다.

이현호 두산에너지빌리티 Plant EPC BG장은 "2022년 1단계 프로젝트에 이어 2단계 사업까지 수주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 대규모 발전 프로젝트 발주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 공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최근 중동에서 발전 프로젝트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카타르 수전력청(QEWC)과 약 2900억 원 규모의 피킹 유닛 가스발전소 건설공사를 계약했고 사우디에서는 약 2조 2000억 원 규모 루마1·나이라1 가스 복합발전소와 약 8900억 원 규모 PP12 가스 복합발전소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원관희 기자 wkh@

한화그룹,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에 사과

경찰·소방, 사고 원인 조사 착수

1일 오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직원 5명이 숨진 가운데 한화그룹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화그룹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입장문을 통해 "소중한 직원 다섯 분이 숨져 비통하고 안타깝다"며 "깊은 애도를 표하고 숨진 직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로 부상을 입은 직원들의 빠른 쾌유를 빌며 치료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민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사고 직후 순재일 대표이사 주재로 서울 본사에서 대책 회의를 가졌다. 손대표는 회의 직후 대전

사고 현장으로 이동했으며 현장에는 대책본부를 마련해 소방·경찰 등 관계당국과 사고 수습을 진행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동시에 사고 원인을 규명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했다.

사고는 이날 오전 10시 59분께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 세척작업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작업실 안에는 작업자 7명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5명이 숨지고 2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망자는 유성선병원과 충남대병원으로 나누어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1층 세척작업실에서 추진체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원관희 기자

SK인텔릭스

로봇 보안 서비스 선배

자율주행·AI로 CCTV 사각 보안

SK인텔릭스가 웰니스로봇 플랫폼 '나무엑스(NAMUHX)'의 지능형 보안 서비스인 '세이프 케어(Safe Care)'와 라이브 뷰(Live View)'를 정식 출시했다. 1일 SK인텔릭스에 따르면 이번 신규 서비스는 고정형 CCTV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로봇의 자율주행 기술과 비전 AI를 결합한 '이동형 보안 시스템'으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세이프 케어(Safe Care)'는 AI가 스스로 침입자를 식별하고 위험상황을 감지하는 능동형 보안 서비스다. 특히 나무엑스 전용 앱 '하이나무'를 통해 서비스 구독부터 로봇 제어, 위급 상황 발생 시 112·119 긴급 신고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김승호 기자

KAI

차세대위성 3호 운영

국가위성센터에 권한 이관

KAI가 차세대중형위성 3호의 개발에 이어 초기 궤도상 운영까지 수행하며 위성 사업 역량을 넓히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달 28일 차세대중형위성 3호(CAS500-3)의 초기 운영 임무를 완료하고 운영 권한을 우주항공청 국가위성운영센터로 공식 이관했다고 1일 밝혔다. 차세대중형위성 3호는 우주기술 확보와 우주과학 임무 수행을 위해 KAI가 총괄주관기관으로 개발한 위성이다. 지난해 11월 27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에 탑재돼 발사됐다. 위성은 본격적인 임무에 투입되기 전 궤도상 성능 검증을 거친다. KAI는 발사 직후부터 남극 세종기지와의 대전 지상국을 통해 위성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주요 기능을 단계적으로 점검해 왔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